

## 보도해명자료 (19. 7. 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전력수급의 핵심은 원전 등 에너지원별 공급능력이 아니라  
총 공급능력과 예비자원 규모 (조선일보 7.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금번 대책에 에너지원별 공급능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'원전 가동 확대에 대한 비판'과는 무관함
- ◇ 7월 5일 조선일보 <“여름 전력대란 없다”면서... 원전계획은 쏙 뺀 정부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### 1. 기사내용

- 지난해 기록적 폭염에 원전 가동을 늘린 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금년 하계 전력수급대책에는 과거와 달리 원전 가동 계획 비공개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금번 대책에 원전 등 에너지원별 공급능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'원전 가동 확대에 대한 비판'과는 무관함
  -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원별 공급능력이 아닌 총 공급 능력과 예비자원의 규모가 중요하며,
  - 이를 위해 에너지원과 상관없이 올 여름철 피크시기에 최대한 많은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임
- 산업부는 전력수급 대책기간(7.8~9.20) 중 전력거래소·한전 등과 공동으로 “전력수급 상황실”을 운영하여 안정적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임

※ 문의: 전력산업과 윤요한 과장/이선덕 주무관(044-203-5159)